



대학의 역사와 전통이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Colin Lucas 영국 옥스퍼드대 총장

요약

이 글은 현재의 상황이 주제의 중요성을 입증함을 보이면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유서 깊은 대학들이 현 시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그들의 역사가 현 상황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 셋째, 이러한 대학들이 20세기 말에 극복해야 하는 도전은 무엇인가?

이 글은 옥스퍼드대학의 역사와 다른 대학들의 경험을 통하여 대학과 사회 간의 필수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 대학이 지닌 사회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지도계층에게 유용한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기능이 국가구조와 특수한 관계를 맺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관계는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학들을 유지시켜 온 것이 사실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대학의 다른 기능들, 즉 사회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식의 유지, 발전 및 단순한 기술만이 아닌 가치관의 전수를 통한 전인교육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전통이 깊은 대학과 사회의 관계는 복잡미묘하며, 이아말로 대학이 극복해야 할 도전이라 결론짓고 있다.

이 회의의 의제 “대학의 역사와 전통이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20세기 말 대학이 직면한 딜레마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대학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금세기의 종언과 새로운 천년의 도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에 눈을 뜨고 나아가 우려를 감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학의 존재 목적에 의문이 제기되며 대학의 사회적 기능 역시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 존재의 합리화와 책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삼십여 년 간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학이 생겨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은 각국의 고등교육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대상, 연구의 목적, 교육이 대표해야 하는 가치관, 무엇보다도 누가 이러한 대학의 사명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실정이다. 일부 대학들이 다른 목적을 표방하고 특이한 행동양상을 나타냄에 따라 대학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사람들은 고등교육의 동질성보다 다양성에 충격을 받는 것이다.

이로부터 회의의 의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과연 오랜 전통을 지닌 대학들이 현 상황에서 수행할 만

※ 이 글은 '98년 9월, 성균관대학교 개교 600주년 '세계 총장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한 특별한 역할이 존재하는지와 대학의 오랜 역사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옥스퍼드대학은 800여 년의 실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수도원이나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블로나 대학과 파리대학에 이어 세 번째로, 대학다운 대학으로 설립되었다. 물론 그러한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나라도 오랜 전통을 지닌 대학을 한두 개쯤은 보유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과 그에 따른 성숙도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그러한 대학들에게 일종의 권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아마 이것이 이 대학들이 현 상황에서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권위라는 것은 깨어지거나 변화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매우 연약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변화의 불확실성은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학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던져 준다. 그러므로 주된 주제가 오랜 전통을 가진 대학들의 역할이라면, 이러한 대학들이 직면한 변화를 부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옥스퍼드대학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대학은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의 요구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할 때 대학도 변화함을 보여 준다. 옥스퍼드대학의 개괄적 조망이 이를 잘 나타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케임브리지대학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옥스퍼드대학은 영국의 중세 초기,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고 국민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생겨났다. 이들은 대부분 성직자들이었으며, 대학은 주로 기독교 사상을 포함하는 철학, 교회법을 비롯한 법학, 그리고 의학 교육을 담당했다.

16세기로 시계바늘을 돌려보면 이 대학이 변화된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전 세기에 일어난 전쟁들로 인해 귀족 계층이 몰락하였고, 1530년대의 종교적 변혁은

많은 양의 토지를 수도원으로부터 환수하였다. 이리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이 출현했고 이들에게는 법이야말로 재산, 권력, 신분을 유지시켜주는 도구였으며, 대학은 이들을 비교적 활발히 받아들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19세기 중반으로 가 보아도 유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산업혁명과 상업혁명이 양산해 낸 활동적이고 성공적인 중산층은 아직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 수학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안팎의 개혁 압력에 의해서 옥스퍼드대학은 새로운 입학기준과 교과내용을 개발하게 된다. 그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산계층이 출세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학위의 가치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수반되는 새로운 지식의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생물학, 물리학, 공학, 사회과학, 마침내 경영학에까지 학위과정이 개설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로부터 세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은 확실히 적응력이 있으며,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사회와 함께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며, 대학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학은 변화를 기대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그러한 변화를 환영해야 한다.



두번째는 대학이 오래 존속되고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까닭은 대학의 주요 기능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은 사회의 역동적 조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관계는 국가의 권력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대학의 성장과 안정은 사회 지배계층에 봉사하는 능력에 좌우되어 왔다. 예를 들면 18, 19세기에 프러시아의 대학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잘 훈련된 관리들과 권력 유지에 필요한 이념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엽에 소르본대학은 중도적 공화사상과 중산층 전문직업인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번영을 구가하였다. 또한 20세기 전반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거의 독점적으로 중산층의 전문직업인들을 배출하는 기능을 탈피하여 영향력 있는 고소득 지배계층을 배출하게 되었다. 1860년 이후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역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다수의 정치인, 공무원, 행정가들을 교육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이 유명 대학들의 역사를 기능적으로만 파악하여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할지 모르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공간과 시점에서 대학이 고도로 교육받은 준비된 인재를 배출하여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계층간 장벽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최고의 인재들이 대학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상호작용의 선순환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성공적인 대학은 권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처럼 신분상승의 기회와 아울러 적절히 훈련된 젊은이들을 제공하는 일은 여전히 대학의 주요 기능의 하나이다.

그러나 필자가 설명한 위와 같은 관계들은 언제나 대학에 상당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이 사회변화의 요인들에 항상 민감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요인들이 세를 확보하면서

정체되거나 자기혁신에 게을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소수의 혁신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도 사회의 진정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결국 대학의 역할이다. 기존 권력구조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명예와 가치의 순환체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배계층에 대한 의존과 지적 활력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상존한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예를 들어보겠다. 18세기에 이들 대학은 전제군주의 지배를 옹호하고 대학만큼 정체되어 있던 교회와 지주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종교적 동질화 요구에 순응하여, 이들 대학은 사실상 영국의 혁신과 번영을 가져왔으면서도 17세기 혁명세력의 계승자로서 위협시되었던 비국교도들을 축출하였다. 대학이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한 교육을 고수함에 따라 동시대의 커다란 지적 발전은 대학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이들 대학은 영국의 경제적, 정치적 변혁 후에야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대학이 사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대학은 자원획득을 위한 경쟁이 있을 경우에만 학생, 고용주, 정부로부터의 외압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격변기를 제외하면 변화는 비교적 느리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세기 말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대학은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경제의 국제화와 그에 걸맞은 능력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다. 또한 지식의 정의 자체와 접근방법을 바꾸는 기술과 통신의 혁명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전통적 사회조직과 기능이 변하고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속도와 범위로 미루어 이러한 변화에 처한 사회의 요구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대학들은 적절한 지식의 정의와 교육방법, 조직에 있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학들은 변화를 맞아 목적지의 불확실성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변화에 따르는 일반적인 딜레마가 존재한다. 단

기적 실험과 구별되는 역동적 힘은 무엇인가? 일시적 유행이나 탁상공론이 아닌 진정한 혁신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의 체제와 사고방식에 연연하는 전통 깊은 대학들에게 특히 골칫거리가 될 듯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절반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학의 목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제공만이 아니며, 유서 깊은 대학의 권위와 책임이 사회와의 구조적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본업은 무엇보다도 지식이다. 대학은 순전히 정신적인 것에서 완전히 물질적인 것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전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물려받은 지식을 부단히 궁구함으로써 유용한 지식을 적립한다. 이는 다시 탐구와 의문제기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는 기반이 된다. 부분적으로 새로운 지식은 숨겨져 있거나 과거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밝혀 낸다는 점에서 발견이라 볼 수도 있으나, 그 보다는 종래의 지식에 새롭고도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교육을 통하여 물려받은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결합체를 전수한다. 이같은 단순한 설명 뒤에는 훨씬 복잡한 현상이 감추어져 있다. 기본적 사항을 제외하면 지식만큼 불확실한 것은 없다. 특정 개인이나 세대, 국가가 명백한 진리로 믿는 것들을 다른 이들이 보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할 일은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과 옳은 것을 최대한 구별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다른 이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검증해야 한다. 바로 지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임의로 결정해선 안 된다. 되도록 보편적인 이해

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검증을 통하여 복잡다단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참이 되는 합리적인 의미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은 엄격하고 투명하여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일시적인 고려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생산과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는 대학의 독립성과 아울러 대학 구성원들이 어떠한 주장도 아무런 제약 없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투명성, 정직성, 그리고 판단의 독립성을 기초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도덕적 가치이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중 취업을 위한 실용적 기술은 궁극적으로 이해의 도달이나 대학의 뿌리가 되는 가치들보다는 덜 중요하다. '사고의 독립성, 의문심, 실용적 기술' 이야말로 모두가 안정되고 성공적인 사회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다.

전통 깊은 대학의 명성은 이러한 자기관리의 전통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학문적 산물의 가치와 졸업생들의 수준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평가 받는다. 지금까지 필자는 내세워온 위협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통 깊은 대학과 사회 지도세력 간의 관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대학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대학의 명성과 권위는 지식의 생산에 관한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원칙들의 엄격함으로 인해 신망 받는 대학이, 필요한 경우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유서 깊은 대학들의 역사를 보면 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맹종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상황에서 그러한 대학들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다면 바로 미래에 요구되는 유용한 지식에 대한 온갖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러한 원칙을 힘주어 역설하는 것이다. 